

2일 Market Index			
코스피	2427.85	코스닥	787.19
	(+15.00)		(-4.41)
금리	3.878	환율	1315.60
	(+0.081)		(-7.00)



m-커버스토리

과점깨기 이어 담합여부 조사 강도 높아진 압박에 ‘긴장감’

‘은행 제도개선’ 칼 빼든 당국

매주 TF 회의 열고 실태 점검
6개 과제 선정하고 개선 속도
공정위, 금리담합 여부 등 조사
일각선 “현장 너무 모르는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시스

돈잔치 논란으로 못매를 맞고 있는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주 열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 시중은행 과점 깨기에 이어 담합 조사까지 벌이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 15일 제 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은행업의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에 은행업 과점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1차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 체계 개선 방안 ▲보수 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강화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선정했다.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위해 TF를 구성해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회의가 열린 지 약 일주일만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돼야 할 내용이 많고, 설정된 논의 기한 역시 6월 말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해 대출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3일까지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리 문제를 공정위의 담합 조사로 푸는 것은 금융업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와는 다름)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고려해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어 담합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산금리 역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추산해 대출금리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담합이 쉽지 않다. 은행마다 자금조달 상황이나 목표 대출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을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담합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며 “예금·적금·대출 등 금리 비교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유리한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고객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오히려 과당경쟁의 결과 금리 수준이 평준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담합으로 몰아가면 잘 못된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스페이스X 6번째 유인 캡슐 발사 성공

2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 39A 패드에서 유인 우주선을 탑재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우주선 캡슐에는 안드레이 페다예프(러시아), 워렌 호버그, 스티븐 보웬(이상 미국), 숄탄 알-네야디(UAE) 등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세단·SUV 이어 ‘픽업트럭’ 전기차 라인업 확장 본격화

테슬라, 사이버트럭 연내출시 계획
기아·쌍용차도 전기픽업트럭 준비



테슬라 사이버트럭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픽업트럭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픽업트럭 출시를 알리면서 업체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픽업트럭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그먼트이자 국내 시장에도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미국 텍사스 테슬라 기기팩토리에서 가진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전기차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연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최초 공개된 사이버트럭은 당초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2023년 초로 미뤄진 이후 여러 차례

일정이 연기됐다. 사이버트럭은 2020년 출시된 전기 자동차 ‘모델Y’ 이후로 테슬라가 3년 만에 출시하는 신모델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주도한 만큼 사이버트럭 출시로 픽업트럭 시장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 픽업트럭 시장을 이끌어온 포드는 인기 모델인 F-150의 전동화 모델 F-150 라이트닝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다주택자, 규제지역 LTV 30% 주담대 허용

금융위, 대출규제 대거 완화

투기지역 주담대 한도 사라지고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도 해제

앞으로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집값 3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금융위 정책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규제도 일괄 폐지된다.

현재 2억원으로 설정된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진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日은 협력 파트너’” 윤대통령 발언 지지
▲국힘 “민주당 위기로 몰아넣는 개딸 버려라”
/사진 뉴시스

▲이기인 “‘불법 레이싱 모임 운영 의혹’ 장예찬 사퇴하라”
▲민변 “尹 3·1절 기념사, 역사 남을 치욕적 망언”



▲김·경·국세청·금감원 공무원 18명, 로펌 재취업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진 뉴시스